

양성평등 국제현안 Vol.9

2016. 10.22 ~ 2016. 11.4

■ 캐나다 정부, 여성할당제 도입 검토

- 캐나다 정부, 주식공개 기업들이 이사회와 고위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리지 못할 경우 여성할당제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
- ▶ 캐나다 대부분의 주와 지역에서 상장기업들에 매년 이사회와 고위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법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 캐나다는 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 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쳐진 상태인데 캐나다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원 중 80%가 남성임.

■ 아이슬란드가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국가인 이유는?

- 아이슬란드, 2016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지수에서 1위를 차지
- ▶ 1975년 10월 24일 아이슬란드 여성 인구의 90%가 참여한 총파업 이후 획기적 변화들이 나타남 : 전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 선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정당 설립 등
- ▶ 2000년에 육아휴직법이 시행됨 :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아빠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빠들은 육아휴직 후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4% 적으며, 여성 경영자 비율이 22%에 불과함 : 아이슬란드 정부는 2022년까지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것을 약속하였음.

■ 경제적 성별 격차,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 전세계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해지기까지 17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 2016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교육, 경제적 기회, 정치적 권한 각 분야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96%, 95%, 59%, 23%의 기회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성별 격차의 원인은 여성의 낮은 소득, 침체된 노동참여 때문임.

■ 주요 기사

- 캐나다 정부, 여성할당제 도입 검토 [Global News, 2016.10.28.]
- 아이슬란드가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국가인 이유는? [The Guardian, 2016.10.24.]
- 경제적 성별격차,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The Telegraph, 2016.10.25.]
-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 [World Economic Forum, 2016.10.28.]
- 일본 국민 50% 이상, 여성의 출산 후 직장 복귀에 찬성 [The Telegraph, 2016.10.31.]
-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여성 참여 늘려야 [The Huffington Post, 2016.11.1.]

■ 국제기구 및 MOU기관

- UNFPA
 - 전세계 10세 여아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 담당 [2016.10.20.]

■ 주요 기사

● 캐나다 정부, 여성할당제 도입 검토

- 캐나다 자유당은 캐나다 기업의 이사회 여성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는데 여성 할당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지난 9월 상정된 법안은 주식공개기업들에 이사회와 고위 관리직의 성별 구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음. 경제개발부 장관Navdeep Bains는 만약, 몇 년 내에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여성 할당제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함. 캐나다인들에게 여성할당제는 생소한 개념 일 수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 대부분의 주와 지역들은 상장기업들에 매년 이사회와 고위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음. 온타리오는 처음으로 이러한 조치를 실시한 주이며 그밖에 7개 주와 2개 지역이 2014년 합류하였음. 프린스 에드워드 섬, 앨버타주,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유콘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러한 규정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음. 직장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인 Catalyst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기업들의 효과성과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이러한 규정들은 매우 생소한 것임. 대부분의 주와 지역에서 이미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연방법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 2015년 5월 Catalys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9년 이후 약 23% 증가한 수치임. 그러나, 여전히 캐나다 TSX 60대 기업 중 여성 CEO는 단 한 명 뿐이며 캐나다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원 중 약 80%가 남성임. Catalyst에 따르면 고위 관리직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성과는 고착된 상태이며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고위 관리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는 기업 이사회 여성비율 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음. 노르웨이는 기업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성별할당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로(이사의 여성 비율은 최소 40%를 유지해야 함) 현재 노르웨이는 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 ▶ 많은 국가들이 기업 이사회에 대한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제정하였음. 2016 세계은행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인도,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페인이 해당됨. 필요조건은 국가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기업 이사회 중 여성임원은 1명만 있으면 되지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은 기업 이사의 여성임원 비율이 40%가 되어야 함. 한편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는 덴마크, 영국,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캐나다에 비해 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이 높음. 연구에 따르면 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 증가에 있어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국가들은 관련 법률과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Catalyst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노르웨이(35.5%), 핀란드(29.9%), 프랑스(29.7%) 등임. 이 국가들은 모두 이사회 여성임원을 포함해 정부가 법률로 제정한 성별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 ▶ 여성할당제에 관한 정보와 증거 수집을 위해 노르웨이를 여행한 요크대학(York University) 교수이자 변호사인 Aaron Dhir은 “대부분의 임원들은 처음에는 여성할당제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할당제의 전반적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함. Dhir은 “젠더 다양성은 이사회와 기업에 몇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성임원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많은 임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집단사고’는 없었다”라고 덧붙임. Dhir은 이에 대한 한 가지 원인은 여성임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승진을 위한 기존의 전통적 네트워크를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함.
- ▶ 일부 연구에 따르면 여성을 고위직에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들은 일반 여성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승진이 더 이상 성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하게 될 것이며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도외시 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한편 세계은행그룹 보고서의 저자들은 성별할당제의 핵심은 형평성이며 할당제는 고위직에 있어 여성들의 더욱 동등한 대표성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함. 최근 발표된 Credit Suiss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에 여성임원을 보유한 기업들은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에 비해 2005년 이후 3.5% 더 높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Global News, 2016.10.28.]

● 아이슬란드가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국가인 이유는?

- ▶ 아이슬란드는 지난 6년 동안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도 1위를 차지하였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아이슬란드를 전세계에서 직장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명명하였음. 아이슬란드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아이슬란드의 역사에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음. 수세기 동안, 해양국가인 아이슬란드의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이 바다를 향해하는 동안 남편 없이 집에 머물면서 농부, 사냥꾼, 건축가, 건설자의 역할을 맡았음. 또한 여성들은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였는데 이들은 아이슬란드의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 1975년까지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낙담해 있었음. 여성들은 그들의 노동에 대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정치적 대표성의 부족에도 신물이 나 있었음 : 단지 9명의 여성이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음.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975년 10월 24일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시위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의 수 때문이었음. 단지 레이캬비크 거리에 모인 25,000명의 여성들 때문이 아니라, 아이슬란드 여성 인구의 90%가 전면적으로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임. 교사, 간호사, 사무직 근로자, 주부들은 연장을 내려놓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주방에서 요리를 하지도 않았음. 그날 시위에 참여했던, 현재 여행사의 CEO인 한 여성은 “중요한 메시지는 여성들이 일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가 마비된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함.
- ▶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진 보통사람들의 행동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시위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아이슬란드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민주적으로 여성대통령을 선출하였음-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vigdís finnbogadóttir). 다른 획기적인 일들도 뒤따랐음.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정당이 설립되었으며 더 많은 여성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음 ; 1999년까지 하원의원의 1/3 이상이 여성이었음. 그리고 2000년 육아휴직법이 시행되었음. 현재, 모든 부모들이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이는 양도가 불가능함. 또한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공유할 수 있는 3개월간의 추가휴가를 받고 있음. 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2,300유로 한도 내에서 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아빠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 육아휴직 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들은 이전에 비해 더 빨리 출산 후 일에 복귀하고 또한 더 빨리 출산 전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연구에 따르면, 3개월의 육아휴직을 가진 후 아빠들은 지속적으로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고, 가사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의 책임과 가사 일을 처음부터 공유함으로써 변화가 생긴 것임.

아이슬란드는 여성들이 살기에 좋은 국가임. 아이슬란드 여성의 약 80%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의무적 할당제 덕분에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멤버 중 거의 절반이 여성이며 아이슬란드 대학생의 65%, 하원의원의 41%가 여성임. 그러나,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경제력이 약함. 여성 경영자 비율은 22%이며 TV 전문가 중 여성은 30%에 불과함. 또한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14% 더 많음. 이러한 분야의 수치는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높은 편임 : 영국의 경우, 여성의 시급은 남성에 비해 18% 적음.

엄마들이 겪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성별임금 격차는 큰 편인데, 아이슬란드 정부는 2022년까지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것을 약속하였음. 또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조직화가 잘 되어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높은 편임 : 놀라운 사실은 아이슬란드 여성의 1/3이 적극적으로 젠더 이슈를 논의하는 페이스북 그룹-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룹의 이름은 Beauty Tips임-의 일원이라는 것임. [The Guardian, 2016.10.24.]

● 경제적 성별격차,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해지기까지 17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10번째로 발행된 세계 성 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는 2186년까지 성별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발표된 수치보다 63년 증가한 것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참여와 기회 면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기회와 접근성은 남성의 59%에 불과함. 보고서는 보건, 교육, 경제적 기회, 정치적 권한의 4가지 분야에서 144개국을 조사하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교육, 경제적 기회, 정치적 권한 각 분야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96%, 95%, 59%, 23%의 기회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보고서는 여성의 기회와 접근성이 남성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은 몇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하나는 임금인데, 전세계 여성들의 소득은 더 오랜 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남성들의 소득에 비해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임. 또 하나의 요인은 침체된 노동참여인데, 전세계 남성의 노동참여율이 평균 81%인 반면 여성은 54%에 불과함. 고위직에 있는 여성의 수 또한 적은 편인데 전세계에서 단지 4개국만이-바베이도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가나- 남성/여성 국회의원, 정부 고위층, 경영자의 수가 같음. 학위를 취득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교육 분야의 격차 또한 좁혀졌음-현재 95개국에서 여성 대학졸업자의 수가 남성과 비슷한 수준임-. 일부 국가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교육 분야 격차를 해소하였음. 그러나, 정치적 역할의 경우 여성의 대표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23%에 불과한데 단지 2개국만이 국회의 양성평등을 달성하였음.

- ▶ 성별격차를 완전히 해소한 국가는 없지만, 아이슬란드는 높은 여성 정치적 대표성, 관대한 남성 육아휴직 정책, 여성이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 증가로 인해 1위를 차지하였음. 아이슬란드에 이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르완다가 2~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르완다는 1년 동안 성별격차를 80% 이상 좁혔음. 대조적으로, 최하위를 차지한 예멘의 성별격차 해소율은 52% 미만임. 아일랜드는 6위로 하락하였으며 필리핀,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니카라과가 7~10위를 차지하였음.[The Telegraph, 2016.10.25.]

●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

- ▶ 북미, 유럽 지역의 경우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개선이 지연되고 있음 : 전세계 지역별로 여성의 삶의 향상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은 사실임. 그러나 2006년(세계 성 격차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해)과 현재 간의 경제적 성별 격차를 측정해봄으로써 몇 가지 사실을 간파할 수 있음. 경제적 성별 격차가 가장 급격히 감소한 지역은 북미와 서유럽이지만, 하위권에 머물렀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전세계에서 가장 향상된 지역 중 하나임.

- ▶ 서유럽 지역은 47년 후 경제적 성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출발 지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서유럽 지역은 전반적으로 느린 개선 속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별 격차를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 북미 지역은 2006년 이후 계속 퇴보하고 있으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남아시아의 경우 개선 속도가 너무 느려 1,000년 후에도 양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 반면 현재의 남아시아와 거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MENA 지역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인 300년 안에 성별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MENA 지역의 직장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함.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비교적 거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 이는 분명히 좋은 조짐이지만 이 지역 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현재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보수가 높은 고숙련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 분야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남성과 같은 수의 여성이 학교, 전문 학교, 대학교에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는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음. 95개국에서 3차 교육의 성별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90개국에서 중등교육 성별격차가 해소되었음(초등교육의 경우 60개국). 물론, 이러한 사실이 청년층의 100%가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남성과 여성의 기회는 동일하다는 것임. 그러나 대개 여아와 젊은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조건에서 모든 단계의 교육을 마치지만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유리천장”에 직면하게 됨.

▶ 여성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을 하지만, 남성의 경우 1시간 30분에 불과함. 왜 여성들은 좀 더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것일까? 부분적으로는 여성들이 직장 밖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임.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가사노동 시간은 지역적/국가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또한 국가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이를 보임. 여전히 매우 중요한 트렌드는 여성들은 매일 남성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한다는 것임-거의 1시간-. 남성과 여성 간의 가사노동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규/유급 근로의 양성평등은 달성되기 힘들 것임. [World Economic Forum, 2016.10.28.]

● 일본 국민 50% 이상, 여성의 출산 후 직장 복귀에 찬성

▶ 일본 국민의 50% 이상이 여성들이 출산 후 계속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출산 후 일하는 것에 대해 5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한 것은 24년 전 정부의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임.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54% 이상이 여성이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한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토 통신에 따르면 이 수치는 1992년 설문조사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것이며 처음으로 50%가 넘는 사람들이 일하는 엄마들을 지지한 것으로 2년 전 실시된 지난 설문조사보다 9% 상승한 것임.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일본에서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지 증가는 환영을 받게 될 것임.

▶ 일본은 오랫동안 직장에서의 성 차별로 악명이 높았는데 소득, 승진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자녀가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삶은

만성적인 공공보육 시설의 부족, 남성 동료들의 전통적 태도, 고위직에 있는 일하는 엄마의 역할 모델 부재로 더욱 힘들. 아베 신조 총리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머노믹스”라 불리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음. 이 캠페인은 2020년까지 여성지도자의 비율을 3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였음. 2015년 현재 일본 재계 여성 고위직의 비율은 8%에 불과함-세계 평균은 22%임-.

- ▶ 최근 실시된 국무조정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55% 이상이 엄마들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이 수치는 약 53%임. 또한 교토 통신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 중 -설문조사는 올해 8월과 9월, 18세 이상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노년층 응답자들은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70세 이상 중 절반 미만이-45% 미만- 여성이 출산 후 계속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30대~50대 응답자들의 경우 약 60%가 여성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18세~29세 응답자 중 47%만이 일하는 엄마들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임.[The Telegraph, 2016.10.31.]

●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여성 참여 늘려야


- ▶ 글래머지(Glamour magazine)는 “기후변화는 성차별적 영역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헤드라인은 감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음. 또한 여성들은 전세계에서 재배되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함으로써 전세계 사람들을 먹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물 길기, 빨감 모으기와 같은 일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음.
- ▶ 여성들은 가정 내 구매의 94%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 가정 내 소비는 계절음식, 지역 음식을 구입하거나 고기와 유제품 섭취를 줄이는 것과 같은 기후와 관련된 결정들과 연관이 있음. 또한 여성들은 가정 내 에너지 개보수, 태양 전지판 또는 그 밖의 주거개선 프로젝트에 돈을 쓸 것인지 결정함. 여성들은 종종 가족의 “택시 기사” 역할을 담당하는데 어떤 종류의 차를 구입할 것인지, 휴일에 가족들과 어디를 갈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할지를 결정함. 궁극적으로, 여성들은 임신·출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가정 내 의사결정자인 여성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대부분의 전세계적 기후관련 결정들에 여성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회의의 참석자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며 여성 참가자는 소수에 불과했음. 유엔여성, 메리 로빈슨 기후정의재단, Global Gender and Climate Alliance,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발간한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한 대표단 수석의 여성비율은 20% 미만, 대표단 멤버의 여성비율은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후위기가 주로 남성에게 의해 대표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지 중요하지 않게 된 사회에 살고 있으며 과학과 증거의 수용은 사실 그 자체보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사람과 많은 관련이 있음.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남성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되면 기후변화는 남성들의 문제가 되어 버림. 또한 여아들이 남성 기후과학자들만 등장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과학/공학 분야의 여성 부재는 영속화 될 것임.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미디어 인터뷰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The Huffington Post, 2016.11.1.]

국제기구

UNFPA

전세계 10세 여아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 담당

-  전세계의 미래는 10세 여아들에 의해 결정될 것임. 전세계 남아와 여아 모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지만 성차별은 여아들의 위험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10세쯤 된 수백만 명의 여아들은 가사노동을 강요받고 있고, 곧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미 학교를 그만두었을 수 있음. 유엔인구기금의 새로운 보고서인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6은 이러한 여아들의 복지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17개의 개발목표는 빈곤퇴치, 양성 평등,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개발 증진을 위한 필수적 조치들을 촉구하고 있는데, 전세계 여아들의 권리와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이 중 어느 것도 달성될 수 없음. 여아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이들은 전세계 경제, 가족의 건강과 복지, 공동체와 국가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임.

✍️ 다음의 10가지 사실들은 전세계 10세 여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의 가능성에 대해 조명하고 있음.

- 대부분의 10세 어린이들은 빈곤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 1억 2천 5백만명의 10세 어린이 중 89%는 저개발 지역에 살고 있음 : 10세 어린이 5명 중 1명은 유엔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한 48개국에 살고 있음. 이러한 어린이들은 종종 건강하게 자라고, 교육을 받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0세 어린이들 중 약 6천만명이 여아이며 10세 여아의 절반 이상이 양성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살고 있음 : 약 3천 5백만명의 10세 여아들이 성불평등지수에 따르면 양성불평등이 매우 심한 곳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살고 있음. 이러한 여아들은 성장하면서 중등교육, 생식보건 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의사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 10세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더 많은 가사노동, 무급노동을 하고 있음 : 5~14세 여아 중 10%는 매주 28시간 이상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 이는 같은 연령의 남아들이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의 2배임. 또한, 가족기업이나 가족농장에서 일하는 여아 노동자의 75%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의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64%임.
- 여아의 결혼률은 매우 높음 : 매일 18세 미만 여아 약 47,700명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위험에 처함. 보통 어린 신부들은 자녀를 일찍 가질 것을 강요받는데 자녀를 갖는 것 뿐 아니라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에 임신을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건강 악화로 인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음. 또한 보통 어린 신부들은 가사의 책임을 맡기 위해 교육을 포기하게 됨. 사실, 중등교육을 포기하는 여아 중 약 1/3은 조혼을 한 어린 신부들임.
- 매 10분마다 청소년들이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음 : 여아 3명 중 1명은 사는 동안 폭력을 경험하는데 대부분 청소년기(10~19세)에 폭력을 겪음.
- 10~19세 청소년들은 다른 원인보다 AIDS로 사망할 가능성이 큼 :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 HIV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여아들은 교육의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더 큼. 무엇보다 대부분의 새로운 HIV 감염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성폭행 때문임.
-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은 자살임 : 지속적인 여아의 권리와 자율성 약화, 여아들의 꿈과 능력에 대한 방치, 폭력의 만연은 여아의 정신적/감정적 건강에 가중적 영향을 미침.
- 여아를 교육시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로 여겨지지만, 현재 6천 2백만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6~11세 여아 1천 6백만명은 학업을 시작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는 남아의 2배에 달하는 것임.
- 여아들이 학교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마다 향후 10%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연구에 따르면 여아들이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마다 11.7%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의 9.6%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임.

- 10세 여아의 보건, 교육, 역량강화에 대한 투자는 여아의 평생 소득을 3배로 높일 수 있음 : 이러한 투자는 가장 취약한 여아들이 자립을 하고,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건강하고, 교육을 받고, 역량이 강화된 여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과 임신을 미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더 큼. 또한 공동체와 국가가 여아들로부터 얻는 혜택은 더욱 클 것임.[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6.10.20.]